

정읍역·천변에 창작 문화공간·사계절 꽃밭 조성

정읍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용역보고회...비전·핵심사업 논의 미로분수·상설공연장·파크골프장 등 볼거리·즐거거리 제공 계획

정읍시가 민선 8기 내에 정읍천과 정읍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축진체가 되도록 문화·휴게 공간으로 만든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시장의 역점사업인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회가 가졌다.

이 사업은 정읍역 광장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가을철에 편중된 관광객 유입을 시내 지역으로 유도하는 사업이다.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인구감소에 대응해 새로운 시내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형우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 간부공무원과 지역 동장,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비전과 핵심사업 추진계획, 예산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6년까지 유흥지를 활용한 창작 문화공간을 만들고 사계절 연중 다양한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사계절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로분수와 폭포터널, 발 담금 시설 등 물 테마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휴게·놀이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시민의 여가·문화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지교와 죽림교, 정주교, 초산교, 상동교 등에 조성된 야간경관과 연계해 교량 하부에 야간경관 특화 공간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정읍역 광장을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복개해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 이곳에 상설공연장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프리마켓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려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휴게 공간으로서 정읍역 광장의 기능을 재확립하고 정읍천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거리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청에서 열린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핫플레이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고창문화관광재단, 주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학·미술 등 8개 분야 10개팀 다음달 10일~14일 홈페이지 접수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 군수)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확산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공모일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분야는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음악, 국악, 연극, 다원 등 8개 분야로 팀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10개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안중선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이 중심이 되는 지원 방식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지난 28일 전북대 고창캠퍼스 도서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고창문화관광재단의 헌관식에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한다"며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전북대학교 교

차캠퍼스 도서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헌관식을 개최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동학혁명기념공원 내 캠핑장 다음주 개장

오토캠핑·카라반 등 총 51면...매월 20일~말일 홈페이지 예약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정읍시 덕천로 742)에 조성된 '녹두장군 캠핑장' (이하 캠핑장)을 내달 5일 개장한다.

캠핑장은 오토캠핑·오토카라반(자가 카라반)·일반캠핑 등 총 51면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

했다. 캠핑장이 자리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안에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캠핑장 예약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익일 11시까지,

1인 최대 4박 5일까지이며 카라반 또한 설치할 수 있다. 이용료는 비수기와 성수기 관계없이 오토캠핑, 오토카라반 3만원, 일반캠핑 2만 5000원이다. 예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 (063-530-9422)로 문의하면 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녹두장군 캠핑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체험의 장"이라며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설개선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재난 대응 드론 협력체계 강화

5개 기관과 업무지원 협약...드론 예비군 감시정찰반 편성도

남원시가 재해·재난 예방 및 통합방위사태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역 5개 유관기관과 '드론업무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기관은 남원시를 비롯해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교육지원청, 7733부대 3대대, 남원드론교육원으로 기관들은 위기상황 시 무인비행장치(드론) 통합운용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7733부대 3대대 드론 예비군 감시정찰반도 편성했다.

드론예비군 감시정찰반은 7733부대 3대대가 지역방위체계를 구축하고 남원시와 연계해 재해·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남원시 지역예비군기동대에 배속했다.

감시정찰반은 감시와 수색 정찰, 주요 시설 경계 등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화재, 실종 등 재난사

고 및 통합방위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는 업무지원 협약을 통해 유사시 현장 중심의 초동대응과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3 드론 실증도시 선정',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대회 개최' 등 산업분야에 이어 안보분야에서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며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예비군의 특화된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욕구에 맞춰 더욱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정읍 공장·축사 악취 감시 '측정차량' 운행

위반사업장 적발시 행정처분

정읍시가 축산농가 밀집지역과 공장지대 등의 악취를 저감하고자 '이동식 악취 측정차량'을 도입해 운영한다.

정읍시는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4월부터 '이동식 악취 측정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악취 측정차량에는 악취 포집장치와 악취 측정장치, 기상 측정장비 등이 설치돼 있다.

이동 중에도 실시간 악취농도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된 악취수치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시료 포집을 통해 성분분석 의뢰도 가능하다.

시는 이동식 악취 측정차량을 이용한 '악취대응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근무시간 외 악취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입기제 공무원 6명을 악취대응반으로 편성했다.

악취대응반은 주간·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환경순찰 등 촘촘한 악취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악취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대응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차량에 장착된 포집기를 통해 악취를 포집한 후 기준치 준수여부를 따져 악취배출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